



대한민국 제품혁신상 대상

LG전자(주)
LG 디오스 오브제컬렉션 냉장고 Fit&Max
6년 연속 수상

LG 디오스 | Objet Collection

빌트인 스타일 냉장고 'Fit&Max' 라인업으로 맞춤 공간경험 제시



CHECK POINT

- ✓제로 클리어런스 힌지로 가구장과 Gap을 최소화
- ✓상냉장/하냉동, 김치냉장고, 컨버터블 패키지까지 모든 라인업 확보하여 다채로운 구성 가능
- ✓식품 본연의 맛과 신선함을 그대로 지켜주는 냉기케어시스템
- ✓멀티수납코너, 신선펠러스트레이 등 실용적이고 편리한 수납 공간
- ✓노크만으로 내부를 볼 수 있는 노크온도어
- ✓케어서비스로 냉장고 청소, 성능 점검, 필터 등 소모품교체까지 한번에 관리



빌트인 감성과 기능을 모두 담은 냉장고

LG전자가 빌트인 스타일을 구현한 'LG 디오스 오브제컬렉션' 냉장고 핏앤맥스(Fit&Max) 제품군을 확대하고, 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함께 마련했다. 핏앤맥스는 LG전자의 '제로 클리어런스(Zero Clearance)' 힌지를 적용해 냉장고와 벽 사이 틈을 최소화함으로써 마치 주방 가구에 완벽히 맞춰 설치한 듯한 일체감 있는 인테리어를 완성한다.

디자인뿐 아니라 기능 측면에서도 생활에 밀착된 편의성을 갖췄다. ▲냉장고에 연결된 직수관을 통해 동근 크래프트 아이스를 자동으로 만드는 '스템(STEM) 제빙' 기능 ▲문을 열지 않고도 내부를 확인할 수 있는 '노크온' 등 사용자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기능이 대거 탑재됐다. 또한 'AI 냉기케어 시스템'은 사용자의 생활 방식을 학습해 아침 사용량이 많은 경우 사전 냉각을 수행함으로써 내부 온도 변화를 최소화하고, 신선도를 높인다. 핏앤맥스는 상냉장/하냉동 냉장고, 김치냉장고, 컨버터블 냉장고 등 다양한 구성으로 선택의 폭을 넓혔다. 디자인의 경우 ▲아몬드 ▲토프 ▲에센스 화이트 등 LG 오브제컬렉션 고유의 감각적인 컬러로 제공돼 다양한 주방 인테리어와 조화를 이룬다. 최근에는 냉장고를 2대 이상 배치하는 트렌드에 맞춰, 2개의 제품을 나란히 설치해도 간격이 거의 느껴지지 않아 더욱 깔끔한 주방을 연출한다. 예를 들어 냉장고와 김치냉장고를 일렬로 놓아도 마치 하나의 제품처럼 매끄럽게 보이기 때문에, 인테리어 만족도를 높여준다.

고객 맞춤형 체험 공간도 마련

LG전자는 서울 양평동에 있는 베스트샵 서울양평220점에 핏앤맥스의 다양한 장점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체험 공간도 마련했다. 이곳에서는 미식 셰프 패키지(601L STEM 냉장고, 480L 김치냉장고)처럼 대용량 식재료를 넉넉히 보관할 수 있는 조합부터, 일반적인 빌트인 깊이(700mm)에 최적화된 대용량 패키지(613L 냉장고, 480L 김치냉장고)까지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다(2025.3. 기준, 상냉장/하냉동 냉장고+김치냉장고 조합 기준 국내 최대 용량). 이 외에도 좌우 폭이 같은 트윈 패키지(504L 냉장고, 480L 김치냉장고)는 균형 잡힌 주방 구성을 도와주며, 좁은 공간에서도 효율적인 식재료 보관이 가능한 공간 절약 패키지(504L 냉장고, 324L 김치냉장고) 등 라이프스타일 맞춤형 선택할 수 있다.

CEO INTERVIEW

조 주 완 LG전자(주) 대표이사 사장

LG 디오스 오브제컬렉션 냉장고 Fit&Max가 신규 출시와 동시에 제품혁신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LG 냉장고는 매년 새로운 기술과 혁신을 선보이며 세계 시장을 선도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 선보이는 Fit&Max는 기존 판매 제품이던 '빌트인타입' 보다 가구장과 간격을 좁힐 수 있는 '제로 클리어런스' 힌지를 적용해 가구장과 일체감을 더욱 높였습니다. 빌트인타입처럼 상냉장/하냉동, 김치냉장고, 컨버터블까지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으며, 고객의 취향과 공간에 따라 원하는 조합으로 구성·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의 세분화된 니즈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제품입니다. 또, 이전에 빌트인타입 제품을 쓰시던 고객들도 단일제품을 쓰신다거나 기존 구성에 추가 구성을 얼마든지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나날이 커지는 초개인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혁신적인 고객경험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